

## 4인의 무인 실력자들이 부르는 '칼의 노래'

《고려 무인 이야기 1》 펴낸 이승한씨

이 책의 중심축은 초기 무인집권시대의 네 인물인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이 벌이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다. 이승한씨는 마치 한편의 소설을 쓰듯 이들과 주변 인물들이 벌이는 권력투쟁의 과정을 생생히 묘사한다. 그는 이 책에서 무인집권시대가 “우리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역동적인 시기”라고 말한다.

이승한씨(45,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에게 역사란 “문학과 이야기”다. 문헌과 사료를 뒤져 사실만을 제시하는 역사학은, 그에 따르면, “과욕은 하나도 없고 딱딱한 씨앗만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는 역사에서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가 펴낸 《고려 무인 이야기 1》(푸른역사)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의 사서에 충실한 역사서지만 소설을 닮아 있다.

“역사와 문학은 인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하죠. 랑케의 역사학 이후 역사학은 문학이 아닌 과학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역사를 과학으로만 취급하면 인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 무인집권기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

지금까지의 학계 연구 성과에 따르면, 고려의 무인 쿠데타는 문반과 무반의 차별 대우와 의종의 향락 생활이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의종대의 특수한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의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 세력을 의도적으로 배척했으며, 친위군을 양성했죠. 이 과정에서 소외된 문신귀족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고, 문신귀족들의 뒷바라지 역할에 머무르면서 자존심이 상했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고려 무인집권시대는 그동안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냉대받아왔다. 그 흔한 역사소설이나 사극 한편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무인집권기를 부정적인 시대로 생각하고 무인정권을 부도덕한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고려 무인 집권시대가 “우리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역동적인 시기”라고 말한다.

“무신란 이전의 사회는 문벌귀족들에 의한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무신란을 계기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회 진출을 하는 등 신분간의 계층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무신란은 꼭 막힌 고려사회에 숨통을 틔워 줬죠.”

이 책은 이의방의 ‘보현원 거사’에서 정중부와 경대승의 집권기를 거쳐 이의민이 최충현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약 28년간의 무인집권시기를 해체한다.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 등 ‘4명의 실력자’들과 이들이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벌이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이 책의 중심축이다. ‘보현원 거사’에 성공해 정권을 잡은, 지금의 대위에 해당하는 하급 무인인 이의방, 무인정권 초기에 은인자중하다 이의방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정중부, 26세의 나이에 정중부를 몰아내고 정국을 무신란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 했던 경대승, 천민출신으로 의종을 살해하고 조정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한 이의민까지, 이씨는 초기 무인집권기의 네 인물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무인집권시대의 정치 상황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 진정한 ‘정권’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해

한편, 이씨는 이들의 권력쟁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고려시대의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승한씨



푸른역사/A5신/386면/12,000원

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들 4인방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현감에 해당하는 감무라는 직책은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의방은 이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 활용했다. 또한 무신란 이전까지는 문신이 지방관을 맡았지만, 이후에는 무신들이 지방관에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씨는 이들 4인방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정권’의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급 통치자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고, 단지 하급 통치자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이들은 ‘통치자’가 아닌 ‘실력자’에 지나지 않았다.

“통치자라고 하면 새로운 통치이념이나 프로그램 마련해야 합니다. 정권이라고 부르기에,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사상도 없었고 권력 장치도 부족했죠. 통치력도 왕권에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올 연말쯤 출간될 두번째 책에서 이씨는 최충현에서 최 의에 이르는 최씨 정권을 다룬 예정이다. 이어 삼별초 이전의 몽고항쟁 40년을 다룬 세번째 책과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10여년의 무인정권을 다룬 네번째 책으로 고려 무인정권역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 최갑수 기자